

강기정 “행정통합 공직자 불이익 없도록 특별법 수정”

광주시청 행정포탈에 “확고한 보장” 약속 글 게시
시 공무원, 행정통합 직원설명회서 근무환경 우려
첫 직능별 공청회…특별법 환경 조항 집중 살펴

강기정 광주시장이 전남과 행정통합으로 ‘근무지 이동’ 등을 불안해 하는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기존의 특별법을 수정하겠다”고 약속했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시장은 지난 23일 행정포탈 내부게시판 공직사항에 “확고한 ‘보장’으로 여러분의 ‘불안’을 덜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강 시장은 “지난 2일 행정 통합 공동선언을 하고 불과 20여일 만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여러분(공직자)의 노고 덕분”이라며 “시장으로서 미안하고, 또 고마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업무의 무계단급이나 힘들게 하는 것은 ‘통합 이후의 삶’에 대한 불안함일

것”이라며 “통합 과정 처음부터 공직자 불이익 배제를 약속했고 특별법에 명문화했지만 (근무지 이동)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법 30조 ③항의 ‘원칙으로 한다’는 표현이 예외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해서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큰 만큼 ‘보장한다’로 수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금 광주와 전남은 청년이 떠나고 기업이 오지 않는 지역 소멸의 악순환 속에 있어 무거운 마음으로 통합을 결정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 약속은 우리에게 천군만마와 같다”고 표현했다.

아울러 “공직자의 헌신은 결코 손해가



지난 23일 광주 광산구 운상원홀에서 열린 광주·전남 통합 광산구 시민공청회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과 박영택 국회의원, 박병규 광산구청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아닌 광주·전남의 역사를 바꾸는 당당한 실력이 될 것”이라며 “통합을 끝까지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병철 시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직원설명회’에서 공무원들은 ‘근무지 이동’과 ‘인사 불이익’ 등을 가장 불안해 하며 특별법에 “원칙으로 한다” 등의 문항을 “보장

한다” 등의 단언적 문구로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근무지 이동을 할 경우 거주지 이전 비용 등을 지원 할 수 있다고 특별법에는

명시돼 있는데 이 또한 ‘지원한다’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날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다목적실에서 환경 단체·기관·활동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분야 직능별 시민공청회를 가졌다.

이번 공청회는 통합과 관련한 직능별 공식 논의의 장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광주전남 통합이 지향해야 할 환경정책 방향을 시민과 함께 논의하고, 통합 이후 더 나은 환경정책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환경교육, 자원순환, 탄소중립·기후적응, 생태·습지·숲·녹지·공원 분야에서 활동 중인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공청회에서는 최근 환경단체가 발표한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 관련 성명서에 담긴 문제 제기를 포함해 특별법안에 반영된 환경 분야 주요 조항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중남부권 발전 전략·농어촌 배려 지역 정체성 유지 주문 잇따라

전남도, 장흥서 행정통합 도민공청회

전남도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도민 의견을 듣기 위해 중남부권역인 장흥군을 찾았다.

전남도는 지난 23일 장흥군민회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도민공청회를 열고, 통합 추진 배경과 향후 지역 변화 방향을 설명하며 도민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날 공청회에는 장흥 지역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해 통합 이후 지역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놓고 질의와 의견을 이어갔다.

공청회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따른 장·단기적 변화와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전략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김 지사는 통합을 통해 행정·재정 역량을 하나로 묶고, 산업과 인구, 전주 여건을 함께 키우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도민들은 통합 이후 지역 정체성 유지와 중남부권 발전 전략의 구체화, 농어촌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잇따라 제시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통합 과정에서 특정 지역으로 기능과 자원이 쏠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23일 장흥군민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도민공청회에서 김대중 전남교육감 등 도민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조 조정이 아니라 도민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선택”이라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무안군과 영광군 등 동부권·서남권·광주 인접 지역 시·군을 순회하며 도민공청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

전남선관위, 지선 예비후보자 등록 설명회

30일 광양 시작…내달 10일까지 22개 시·군 순회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군수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를 위한 입후보설명회를 도내 각 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오는 30일 광양시선관위를 시작으로 2월 10일까지 전남 22개 시·군 선관위별로 진행되며, 정당 관계자와 입후보 예정자, 선거사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안내 내용은 △예비후보자 등록서류 준비와 유의사항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선거자금의 회계 처리 절차 등 선거 전반에 필요한 실무 사항이다.

예비후보자 등록 일정도 선거 종류별로 구분해 운영된다.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는 2월 3일부터, 자치구·시의 장과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는 2월 20일부터, 군수 및 지역구 군의원 선거는 3월 22일부터 각각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은 후보자 등록 기간인 5월 14~15일 이전까지 할 수 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입후보설명회는 예비후보자들이 선거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공정한 선거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심 있는 입후보 예정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6·3 지방선거 앞두고 출판기념회 러시



윤병태 나주시장이 지난 24일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지난 시정 성과와 나주의 중장기 발전 비전을 시민들과 공유했다.

윤병태 “‘나주 대도약 시대’ 실현”

1만2000명 운집…미래 100년 전략 공유

윤병태 나주시장이 지난 24일 나주종합스포츠파크에서 ‘나주 대도약시대! 시민과 함께 쓰는 미래’ 출판기념회를 열고, 지난 시정 성과와 나주의 중장기 발전 비전을 시민들과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상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위원장, 민형배 국회의원,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등 주요 정치 인사들과 시민 1만2000여명이 참석해 체육관을 가득 메웠다.

윤병태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저서는 시민의 삶과 지난 4년간 추진해 온 ‘나주 대전환’의 기록이자, 앞으로 시민과 함께 완성해 나갈 ‘나주 대도약’

의 비전을 담은 책”이라며 “현장에서 합스포츠파크에서 ‘나주 대도약시대! 시민과 함께 쓰는 미래’ 출판기념회를 열고, 지난 시정 성과와 나주의 중장기 발전 비전을 시민들과 공유했다.

이어 “이미 확정된 대형 사업과 주요 시정 과제들을 차질 없이 실행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지금 나주에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시민과 약속한 나주의 도약을 실현하는 것이 시장으로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획재정부와 전남도, 나주시에 쌓은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나주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펼쳐질 나주의 도전과 도약에 시민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임택 광주 동구청장의 저서 ‘인문도시의 여정’ 출판기념회가 지난 24일 광주 전남여고 체육관에서 주민과 함께 인사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임택 “구민 체감 가능한 정책 추진”

‘인문 도시의 여정’…주민 일상·존엄 기록

임택 광주 동구청장의 저서 ‘인문도시의 여정’ 출판기념회가 지난 24일 광주 전남여고 체육관(예지관)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 인사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다수의 국회의원, 광주시교육감, 기초자치단체장, 전·현직 지방정부 인사들이 참석해 출판기념회를 축하했다.

또 원우식 국회의장과 정경태 당대표를 비롯한 여야 정치권 인사, 타 지역 기초단체장 등 40여명이 축하 영상과 축전을 통해 메시지를 전했다.

출판기념회는 별도의 기념식이나 현장 축하 없이 저자 기념촬영과 사인회

중심으로 진행됐다. 내외빈 축사는 영상 메시지로 대체됐으며, 인문도시 광주 동구의 정책 성과를 사진과 영상으로 소개하는 전시 공간도 마련됐다.

임 청장은 “도시는 건물이나 숫자가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인문도시는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과 존엄을 행정이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책은 완성된 답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계속 써 내려갈 과정의 기록”이라며 “앞으로도 동구는 삶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인문정책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이 25일 광주교육대학교 풍향문화관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살기 좋은 복구를 만들기 위한 리빙딩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신수정 “20년의 진심을 이제 확신으로”

시민·정치권 등 6000여명 참석 성황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의 20년 정치 철학과 지역 발전에 대한 고민을 담은 저서 ‘신수정의 진심’의 출판기념회가 25일 6000여명의 시민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위원장, 민형배·정준호·전진숙·정진욱·안도걸·박군택 국회의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수석 부위원장, 문인 복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광주시의회 및 자치구의회의원 등 각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출판을 축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황명선·문정복·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박천대·전준호·김문수 국회의원 등은 영상 축사로 축하의 뜻을 전했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축전을 보내왔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지난 20년 정치를 지행해 온 힘은 화려한 기술이 아닌 투박하지만 단단한 ‘진심’이었다”며 “제 이름처럼 우리가 사는 도시를 더 살기 좋게 ‘수정(修正)’하고, 주민의 고단한 삶은 보석 ‘수정(水晶)’처럼 빛나게 만드는 일, 20년의 진심을 이제 ‘확신’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